

기자간담회 모두발언(2022.11.24일)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00%에서 3.25%로 25bp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 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오늘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지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한 정책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를 지속하였습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으며, 유로지역은 에너지 공급불안과 높아진 가격 수준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투자와 수출이 감소하는 등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11월 FOMC 회의에서 최종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겠지만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이후 발표된 미국 물가 지표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간 크게 강화되었던 위험회피심리가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결과 미 달러화가 상당폭 약세를 나타내었고 주요국의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였으며, 주가는 상승하였습니다.
- 국내 경기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졌습니다.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은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로 10월 들어 감소로 전환하는 등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에도 5.7%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석유류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전기·가스 요금이 추가 인상되고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율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2%에서 4.3%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환율 안정과 함께 장기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였지만, 단기금융시장에서는 PF-ABCP 등의 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거래도 위축되었습니다. 당행과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거래가 일부 재개되었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 크게 높아진 신용 경계감과 금융기관의 연말 자금수요 등으로 인해서 CP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여전히 제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1,300원대 중반으로 하락하는 등 불안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 연준의 통화정책, 중국의 방역정책과 그에 따른 위안화의 움직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높은 환율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관련대출 증가에도 신용대출이 순상환되면서 소폭 증가에 그쳤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아울러 지난 8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물가와 성장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는데, 먼저, 국내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리상승의 영향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은 소비 회복 흐름이 유지되면서 지난 8월 전망치인 2.6%에 부합하겠지만, 내년 성장률은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소비 회복세도 완만해지면서 지난 전망치 2.1%를 상당폭 하회하는 1.7%로 예상됩니다. 내년 성장률 하향조정 요인을 구분해 보면, 2.1%에서 1.7%로 낮아진 데는 대부분이 글로벌 경기 둔화폭 확대와 같은 대외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국내 금리상승 등 대내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5.1%, 내년 3.6%로 지난 8월 전망치였던 5.2% 및 3.7%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둔화폭이 0.4%p나 크게 낮아지게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물가 전망치의 하향 조정폭이 크지 않은 것은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전기·가

스요금과 가공식품, 그리고 근원품목에 점차 반영되면서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압력 약화를 상당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물가 전망에는 환율과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입니다. 특히, 11월의 경우에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기저효과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전기·가스요금이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5% 수준의 높은 오름세가 내년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2시에 조사국장이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 수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경기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제약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5bp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금리 수준과 그 도달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금통위원들 간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월 이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12월 FOMC 회의 등 미 연준의 정책결정과 그에 따라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 국제에너지가격 등 대외여건 변화,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